



이 시 백

“전달하고자 하는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현상은 반가운 일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부터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른 새벽 남산길에는 가쁜 숨소리를 내며 뛰는 분들의 수가 날로 늘어간다. 맑은 공기를 가르며 「야—호」소리, 매주 산을 찾는 일요 등산객이 온통 골짜기를 메운다. 정기적으로 건강진찰을 받으러 병의원을 찾는 분들의 수도 꽤나 많아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항간에 농약을 뿌려 콩나물을 키운다는 보도에, 그 어느때보다 몰지각한 그들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더없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신문, 잡지, 방송에서는 건강상담이라하여 건강관리법이니 장수건강식이니 하고 어지러운 정도로 많이 소개되고 있다. 심지어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환자가 전화를 걸어 질병에 대해 물으면 즉석에서 진단과 처방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 과연 이것이 좋은 현상인지 나쁜현상인지 아라송할 때도 많다.

하여간 이 모두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의 흐름속에 나타난 현상으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의 결과라고 해석해 본다. 그런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보건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 가야할 2가지 점이 있다. 첫째는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것 저것 흥미거리 중심의 보건지식을 대중화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보건지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대중매체의 가장 큰 역할은 올바른 지식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건강한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동시에 건강한 행동으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보건에 관한 지식은 개인의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의 피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예방적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지 그 이상의 목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중매체는 건강생활을 지키기 위한 예방목적과는 별개의 보건지식으로서 그 위험수위를 훨씬 넘긴상태로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예가 많다. 바람직스럽지 못한 비과학적인 보건지식, 개인과 가정에서 자가요법의 한계 이상으로 응용될 수 있는 지식, 그것도 의료인의 도움없이 혼자해도 좋다는 식의 위험한 독자관리 방법을 공공

정보의 내용을 신중히 다루어야”

연히 나열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에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는 지식의 전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역할은 국민들에 전달되는 지식이 치료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대국민보건교육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음 둘째는, 대중매체의 특성을 알고 이에 적절한 보건지식을 보급해야 할텐데 모든 보건지식을 무차별하게 쏟아 붓는 예가 허다하다.

대중매체의 가장 큰 장점은 짧은 시간내에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나,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도가 적은 일반국민에게는 대중매체의 정보내용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또한 단점이다. 그렇다면 대중매체를 통해 보급하고자 하는 보건지식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예방목적에 있지 치료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자가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 정보가 넘치는 상황하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지킬 필요가 있는 일반국민에게는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론적인 결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와 같이 무분별한 치료지식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가 남발되는 경우, 이분야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보다 쉽게 그리고 나쁜 방향에서 영향력을 더 강하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중매체가 일반국민에게주는 영향력은 사실상 각부문에서 대단히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보건정보의 내용에 따라 잘못하다가는 나쁜 방향에서 보건지식 전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활용한 국민보건교육은 대단히 중요시되나, 전달하고자하는 정보의 내용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국민을 위한 모든 보건지식은 건강생활을 지키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를 유지시켜 나가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대중매체의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함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한국보건교육학회장)